

슛돌이 이강인, 벤투호 ‘중원의 빛’ 될까

축구협, 소속팀 발렌시아에 차출 공문
A매치 거부권 없어 합류 가능성 높아
대표팀 월반덴 ‘MF 카드’ 가능성 점검

“유럽에선 국가대표로 뽑히면 (소속팀이) 연명별 대표팀 차출을 반대해요.”

‘한국축구 희망의 아이콘’ 이강인(18·발렌시아CF)의 국가대표팀 차출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무이사가 한 얘기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A대표팀은 남미 2개국과 3월 A매치 시리즈를 진행한다. 22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격돌한 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자웅을 겨룬다.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막을 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은 8강에 그쳤다. 당초 우승을 목표한 터라 아쉬움이 짙게 남았다. 9월 시작할 2022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두고 대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CF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강인은 ‘벤투호’에 승선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A대표팀 승선이 유력하다. 사진출처 | 발렌시아 SNS

팀을 재정비하기 위해 협회는 3월과 5월 A매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기성용(뉴캐슬)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아시안컵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하면서 세대교체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꾸준히 성장한 이강인이 유력한 카드가 됐다.

아시안컵 이후 모국에서 휴식을

취하던 벤투 감독이 스페인을 찾아 이강인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역시 발렌시아에 ‘이강인을 A대표팀에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협조 공문을 최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럽을 포함한 해외 리거들을 A매치 기간 활용하려면 협회는 A대표팀 소집 보름 전까지 각 소속 구단에 차출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이강인의 경우는 ‘예비 멤버’ 개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벤투 감독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면 굳이 공문을 발송하는 수고를 할 리 없다는 점에서 이강인의 A매치 데뷔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벤투 감독은 11일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소집훈련에 돌입한다. 그런데 이강인은 모든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5월 폴란드에서 개최될 국제축구연맹(IF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출전할 정정용 감독의 U-20 대표팀도 17일 시작할 스페인 전 지훈련에 참여시키길 희망하고, 김학범 감독의 23세 이하(U-23) 대표팀 역시 2020도쿄올

림픽을 위해 이강인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변수가 있다. 강제 차출이 가능한 A매치와 달리, U-20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출전시키려면 선수의 소속 팀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홍명보의 말처럼 유럽 클럽들은 국가대표를 거친 선수의 연명별 대표팀 합류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키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다. 선수의 노력과 함께 협회의 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올림픽에는 병역혜택이 걸려 있으나 U-20 월드컵은 소속 팀을 설득할 만한 뚜렷한 ‘당근’마저 없다. 빠른 ‘월반’이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렌시아 1군에 데뷔한 이강인은 1월 ‘정식 1군’으로 승격했으나 이후 출전 기회를 거의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2019~2020시즌부터 임대 신분으로 새로운 팀을 찾을 전망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황희찬

황희찬 허벅지 부상 벤투호 ‘A매치’ 비상

튀르키예전 통종...4주 가량 결장

황희찬(함부르크SV)의 3월 A매치 출격이 불발됐다.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6일(한국시간) “황희찬이 허벅지 힘줄을 다쳤다. 앞으로 4주 가량 결장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황희찬은 전날(5일) 크로아티아 튀르키예와 분데스리가2(2부 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 막바지 수비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며 쓰러졌다.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던 그는 즉시 교체 아웃됐다.

앞서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사타구니 부상을 당한 황희찬은 지난달 16일 하이텐하임과 경기를 통해 복귀했지만 3경기 만에 다른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다.

황희찬의 부상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다. 18일 소집훈련을 시작할 대표팀은 22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격돌한 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갖는다. 우승을 노린 아시안컵에서 8강에 그친 대표팀은 9월 시작할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앞두고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데, 황희찬이 이탈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벤투 감독은 11일 대표팀 명단발표를 앞두고 다른 공격육선을 찾아야 할 입장이다.

남정현 기자

여자축구, 4개국 친선전 뉴질랜드 격파

한국여자축구대표팀이 호주 4개국 친선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뉴질랜드를 물리쳤다. 한국은 6일 호주 멜버른의 AAMI 파크에서 열린 4개국 친선대회 3차전에서 뉴질랜드를 2-0으로 꺾었다. 지소연은 후반 29분 중거리포로 골 망을 흔들었고, 문미라는 후반 42분 추가골로 썩기를 박았다. 지난 달 28일 대회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에 5-0 대승을 거둔 한국은 3일 호주와 2차전에서는 1-4로 졌으나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대회를 2승1패로 마쳤다. 7일 귀국하는 대표팀은 다음 달 국내에서 열리는 평가전을 통해 2019 여자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을 갖는다.



토트넘 손흥민(왼쪽)이 6일(한국시간) 원정으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2018~2019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제친 뒤 질주하고 있다.

도르트문트(독일) | AP뉴시스

손흥민 생애 첫 UCL 8강...“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유럽챔스리그)

여기는 독일

‘양봉업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활짝 웃었다.

토트넘은 6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 시그널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원정 2차전에서 1-0으로 승리, 1·2차전 합계 4-0으로 대회 8강에 올랐다.

이날 선발 출격해 후반 36분 교체될 때까지 71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빈 손흥민과 후반 4분 결승골을 터트린 해리 케인의 플레이는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다만 아쉬운 장면도 있었다. 전반 30분 단독 찬스를 잡은 손흥민이 슈트를 시도하기 직전,

상대 수비수 아간지가 밀었다. 균형을 잃은 다리로 시도한 슈트는 골문을 벗어났다. 손흥민이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영국 언론들은 “VAR(비디오판독시스템)이 있었다면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승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 손흥민이 U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가 5일 공개한 유럽축구 이적시장 가치에서 1억300만 유로(약 1276억 원)를 기록하며 가치를 입증했기에 의미는 배가 됐다. ‘1억 유로’ 시대를 열어젖힌 손흥민은 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런던풋볼 어워즈 2019’에서도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경기 후 손흥민은 “우리 여정은 끝나

지 않았다. 8강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UCL 8강에 올랐다.

“유럽 최고의 8개 클럽에 우리가 포함됐다. 영광스럽다. 그동안 모두의 노력을 돌이켜보면 토트넘은 충분히 8강 자격이 있다. 그만한 가치를 얻었다. 개인적으로 처음 8강에 왔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지시가 많았는데. “선수들의 의지를 깨우려 하셨다. 경기 도중 포지션 변화와 전술운용 등을 말씀하셨다.”

-도르트문트의 공세가 거셌다. “전반을 0-0으로 잘 버틴 것이 승인이다. 도르트문트도 강호다. 축구는 원하는 대로 예상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다. 모

두가 협력해 공격을 했고, 함께 수비를 했다. 서로를 도우면서 많은 걸 느꼈다.”

-모처럼 독일에 돌아왔다.

“정말 출제라. 영국보다 훨씬 추웠다. 독일에 대한 감정도 특별하지만 어디서든 이렇게 큰 경기를 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정말 큰 행복이다. 좋은 스타디움에서 뛸 환경이 열린 것도 감사하다.”

-도르트문트의 오마르 토프락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이엘 레버쿠젠(독일)에서 함께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간의 안부도 나눴고, 팀 훈련을 비롯한 축구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정말 좋은 친구다.”

-토트넘의 일정이 촉박하다.

“시즌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3~4일에 한 경기씩 소화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누구도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다. 힘들더라도 버티고 있다.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다.”

도르트문트(독일) | 허유미 통신원

이럴 수가!...‘디펜딩 챔피언’ 레알의 몰락

(레알 마드리드)

UCL서 아약스에 대해 ‘16강 탈락’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3년 연속 제패했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16강에서 탈락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6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아약스(네덜란드)에 1-4로 완패했다. 원정 1차전에서 2-1로 이겼던 레알 마드리드는 합계 3-5로 역전당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레알 마드

리드가 안방에서 4골 이상을 내준 것은 2015년 FC바르셀로나전 이후 4년만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13번 우승할 정도로 챔피언스리그와 인연이 깊다. 2010~2011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년 연속 최소 준결승에 진출했고, 이 중 4차례 결승에 올라 모두 정상에 올랐다. 특히 2015~2016시즌부터는 지네딘 지단 감독의 지휘 아래 3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그랬던 레알

마드리드가 올 해 완전히 침몰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르지 못한 건 2009~2010시즌 이후 9년 만이다.

반면 2002~2003시즌 이후 16년 만에 8강에 오른 아약스는 축제 분위기다. 당시엔 조별리그 이후 곧바로 8강이었기 때문에 녹아웃스테이지에서 승리한 건 1996~1997시즌 이후 22년 만이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